

핫팬츠 입고 다니는 딸 걱정 때문에

핫팬츠를 입고 다니는 딸을 걱정하는 한 남성이 입지 말라는 말 대신 유머를 섞은 행동으로 딸을 설득한 모습이 공개돼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사는 제이슨 힐리는 12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어떻게 10대 딸이 핫팬츠를 포기하게 하는지 그 순간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유했다. 화제가 된 이 영상은 남성이 막내아들과 함께 큰 딸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영상을 보면 딸에게 “켄들, 우리 얘기 좀 하자.” 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 딸은 눈을 가리며 아연실색하고 만다. 그도 그럴 것이 남성은 가랑이 부근까지 짧게 자른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

함께 들어온 그의 아들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지만, 남성은 딸에게 “너도 네 반바지를 입어라. 누가 더 잘 맞는지 보자.” 고 말한다.

“어떤 반바지를 말하는 거야?” 라고 되묻는 딸에게 그는 “새로 사준 거, 사실 더 길었던 바지말이야.” 라고 답한다. 문제의 핫팬츠를 입는 딸에게 그는 “그래, 그거다.” 고 말한 뒤 자신은 거울 앞에 서서 포즈를 취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뒤쪽에서 영상을 찍던 아내를 바



라보며 “어느 쪽이 더 짧지, 여보?” 라고 묻는다. 그러자 아내는 “당신들은 (그런 옷을) 감당할 수 없다.” 고 대답한다.

딸이 놀란 건 이어진 말 때문이었다. 힐리는 “이제 학교로 낼 마중 갈 때 이걸 입고 갈 것” 이라고 말하면서 털이 수북한 자신의 허벅지를 손으로 탁탁 두드렸다. 그러자 딸이 “아니야, 그렇게 짧지 않다.” 며 항변했지만 그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렇고 말고, 아빠가 입은 바지도 그렇게 짧지 않다.” 고 응수한다.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공개 직후 네티즌들은 “정말 멋지다. 올해 최고의 아빠” 라면서 힐리를 응원했다.

경찰서 앞에서 1년째 주인 기다리는 개



한 반려견이 강도 혐의로 붙잡힌 주인을 1년이 넘도록 유치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25데마요 경찰서에 웨일라라는 이름의 이 반려견의 주인이 특수강도 혐의로 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건 지난해 초였다. 웨일라가 경찰서 밖에서 노숙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경찰은 “주인을 이송할 때 웨일라가 순찰차를 따라온 것 같다.” 고 말했다.

24시간 경찰서 주변을 떠나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는 웨일라는 곧 경찰들과 친구가 됐다. 경찰들은 웨일라를 끔찍하게 챙기고 있다. 매일 사료를 주는 건 물론 가끔은 주인과의 면회도 허락하고 있다. 저녁에 유치장에 들어가 주인과 잠을 자도록 한 뒤 아침에 깨내주는 식이다.

얼마 전 웨일라는 아찔한 일을 당했다. 잔인하고 사납기로 유명한 맹견 아르헨티나 도고를 길에서 만나 공격을 당한 것. 부상이 워낙 심해 웨일라는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들은 십시일반 돈을 걷어 치료비를 지불했다. 경찰들은 “1년 넘게 함께 지내면서 이젠 한 가족이 됐다.” 면서 웨일라에 대한 끔찍한 사랑을 감추지 않았다.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웨일라의 주인은 3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유치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교도소가 만원이라 유치장에 수감된 것이다. 그는 앞으로 2년가량 더 쫓겨나 지러야 한다.

웨일라를 돌보고 있는 경찰서의 부서장 후안 마르티니는 “언젠가는 웨일라와 헤어질 날이 올 것” 이라면서 “실제로 그날이 오면 경찰들이 매우 슬퍼할 것” 이라고 말했다.

23년 동안 뱃속에 가위 담고 산 여성

복통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이 23년 전 수술을 받을 때 뱃속에 가위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분노에 휩싸였다.



러시아 출신 에제타 고비바(62)는 지난 몇 년간 심한 복통을 겪어 병원을 찾았다. 의사들은 그녀의 간에 문제가 있다며 각종 진통제를 처방해줬다. 하지만 극심한 복통은 계속됐다.

고비바는 이유를 알기 위해 최근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자신의 뱃속에 수술용 가위가 들어있음을 깨달았다. 약 6인치(약 15cm) 길이의 가위는 23년 전인 1996년 그녀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제왕 절개 수술을 받았던 당시 의료진의 실수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레이를 촬영한 병원 직원은 고비바가 옷 주머니에 가위를 넣었다고 오해했다가 진실을 알고 거의 기절할 듯이 놀랐다.

고비바는 “나는 수년간 이어온 고통의 진실을 알고 격분해 눈물을 흘렸다.” 며 “지금까지 나는 고문당해왔다.” 고 밝혔다. 그녀는 매일 밤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다며 과거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한 병원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23년 전 고비바가 제왕절개를 받았던 병원으로 하여금 가위를 제거하는 수술 비용 부담하는 것은 물론, 고비바가 재정적,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400

잇몸치료
~~\$600~~ → \$400

틀니
~~\$1200~~ → \$850

KMC Dental Group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